



제목	Me and Rumi: The Autobiography of Shams-i Tabrizi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Fons Vitae
발행일	2004. 9. 1.
저자	Shams-i Tabrizi William C. Chittick(번역자)
출판도시	Louisville
페이지수	530
ISBN 또는 ISSN	978-1887752527

내용 요약

가족 전통에 따라 선조로부터 전수받은 종교적·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루미는 지성적이고 학식이 풍부한 종교 학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다. 어릴 때부터 루미 주변에는 루미의 아버지를 비롯하여 루미에게 학문적 지식과 종교적 교리를 가르치는 스승이 많이 있었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는 그 역할을 아버지의 제자들이 지속하였다. 그리고 루미 스스로 종교적 교리와 학문적 지식의 전수자 내지 전파자였다. 이렇게 볼 때 루미를 수피즘의 대가라고 부른다고 해서 아프가니스탄 발흐에서 다져지고 터키 콘야까지 이어진 루미의 학문적·종교적 기반을 도외시하는 것은 루미에 대한 올바른 접근 방식이 아니다.

그런데 종교 학자이자 교사였던 루미가 샴스 타브리즈라는 한 남자를 만남으로써 그때까지 자신을 떠받치고 있던 지적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신비주의적인 사랑의 종교를 신봉하게 되는데, 이 책은 루미에게 이러한 결단을 하게 샴스 타브리즈의 자서전이다. 샴스 타브리즈는 루미의 대표 시집인 『타브리즈 샴스 시집 Divan-e Shams-e Tabrizi』의 주인공이며 루미의 수피사상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루미는 수피 탁발승 타브리즈 샴스와의 영적 교류를 통해 인간애, 신적 사랑, 신인합일의 영성을 수피즘적인 사상(詩想)으로 표현했다. 루미의 가같은 사랑을 주제로 하는 짧고 서정적인 연애시의 일종으로 원래 페르시아어로 썼지만 오늘날에는 터키어, 아랍어, 영어 등으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샴스 타브리즈의 어린 시절과 교육 경력, 학문을 통해 얻은 것과 잃은 것 등을 알 수 있고, 그가 옮긴 여행의 행적을 따라 갈 수 있으며, 샴스가 살면서 만났던 스승들과 수피 족장들의 면면을 볼 수 있다. 이 책에는 샴스 타브리즈가 루미에게 영향을 끼친 핵심 내용인 ‘신에게 이르는 길’과 샴스 철학, 진정한 친구, 성인들, 그리고 샴스의 경전 해석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